

# 최 후 승 리 를 향 한 힘 찬 발 걸 음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되어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작롭게 하는 무적장군으로 자라난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어나가고있다.

두해전 전진길에서 뜻깊은 선전절을 맞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조국과 우리 혁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동무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곳곳이 한길을 걸어나갈 굳은 마음을 다시한번 굳게 다진다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자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너무도 뜻밖에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비분의 피눈물속에 밝아온 주제 101(2012)년 새해의 아침그이께서 찾아가신 곳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

기자: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준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대한 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선군이아말로 민족의 보금자리인 삼천리강도와 민족성원 개개인의 운명을 참혹한 전쟁의 재난에서 구원해주고있는 애국의 보검이라고 생각한다.

김수길: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남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침략세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 그 힘은 군력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모든 민족들의 운명, 전도가 힘의 대결속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지난날 군력이 약했던탓에 외세에게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한 가슴쓰리고 통탄할 치욕의 력사가 있다. 대포와 군함을 끌고온 외세앞에서 고작 창과 화승총으로 맞서야 했고 령강들의 힘을 빌어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종당에는 외세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겨 《시일야방성대곡》의 비란에 빠지지 않으면 안된 우리 민족이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군력이 약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치욕과 수난의 운명도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는 전적으로 공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때마다 최대의 열점지역들에 위치한 서해의 섬방어대들과 오성산, 까칠봉초소를 비롯한 적진과 직접 맞서고 있는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신 원수님의 모습은 겨레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이의 현지시찰을 목격한 영국의 한 언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엄혹한 시기 세계에서 가장 침체한 지역인 이곳을 시찰하신것은 미국과 남조선군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퇴성벽력과도 같다. 그이의 시찰은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복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역센 기상과 적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은 미국의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정은령도자는 조선의 통일을 안아오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반제전선의 최고사령관이다.》라고 소리높이 격찬하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었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었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고 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원수님께서는 순간도 쉬없이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나가게신다.

지난해 3월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해주시고 8월에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는 력사적로작을 발표하시어 선군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명시해주셨다.그이께서는 얼마전에도 자

문을다.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면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지만 유독조선반도에서만은 감히 전쟁의 불을 피르지 못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있기 때문이라는것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선군정치와 그것으로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미국에 의해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고 우리 민족은 선군정치로 존엄하고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지닌 공화국앞에 쓰디쓴 참패를 거듭하고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이며 지향이다. 그러나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면 마땅히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야 한다. 군력이 강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고 군력이 약하면 침략세력에게 먹히우고 세계의 평화가 교란되게 된다것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나토의 주도하에 전 유고슬라비아를 침략하여 평화를 유린한것,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이라크를 침공한것도 그 나라들의 군력이 약했기때

## 선군의 한길로 끝까지

뜻깊은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의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이 가슴을 파고든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제국주의의 반공화국인 살판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살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그에 대비할수 없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만만시련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분이 장군님이시였다. 제국주의 때무리들이 우리 나라를 삼켜보겠다고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던 그때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리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도 지켜내지 못했을

## 침략세력에게 단호한 징벌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우리의 평화적호소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울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합동전쟁연습에 미쳐달랠고있는 데 대해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할수 없다. 내외호전세력이 《맞춤형억제전략의 속달》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도처에서 짙은 화약내를 풍기고있는것은 미친개의 본성그대로이다.

우리의 참용성도 이제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미친개는 몸통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우리의 정의의 위엄에 도전하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백두산총대

의 수처스러운 노예의 운명에 처하였을것이며 이 땅에는 전쟁의 참화가 열번도 더 빚어졌을것이다.

선군이 있어 조국을 지키고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닌가.

정녕 선군은 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이고 민족의 운명개척과 밝은 미래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선군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주민 김 명 순

로능적위군 지휘관 김 영 철

제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를 여러 차례 지도하시면서 적대세력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었다.

천출명장이 계시어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든대도 조금도 끄떡 안할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불변의 진로로 삼으시고 드립없는 계승의 한길을 걸으시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강성국가와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며 그 걸음을 따라 공화국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남조선의 반통일호전세력을 북남대결에로 극구 부추기는 한편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구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자처하면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지만 유독조선반도에서만은 감히 전쟁의 불을 피르지 못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있기 때문이라는것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평화는 오직 침략자의 그 어떠한 공격도 일격에 격퇴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평화애호의지를 그 무슨 나약성으로 오만하고 우리의 령도, 령해에 전쟁연습의 사소한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우리는 호전세력에게 진짜 전쟁맛, 불마당질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는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한다. 최후의 승리는 자주와 정의, 선군의 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에 있다.

# 백두산총대의 대강

김 윤 식

장군님 가고가신 선군의 그 길에서 무적필승의 보검으로 다져진 백두산총대 이 총대가 있어 인민의 행복 그 어떤 불구름도 태울수 없었다 내 조국을 그 어떤 원썬도 건드릴수 없었다

백두의 산악처럼 굳세고 백두의 눈보라를 서리발로 비껴안은 총대 시련의 만단고비를 넘으면서도 목숨처럼 놓지 않은 백두산총대 뜻깊은 이날에 무엇을 말하는가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그 력사의 날로부터 장장 50여년 승리와 영광의 세월을 이 땅에 펼쳐오신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 우러러 더치고여치는 경모의 격정

뜨겁게 어려와라 8월의 그날로부터 기나긴 세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천만리 넘으신 험준한 산밭이며 파도세찬 날바다 길이

## 《북의 선군정치는 남북모두를 보호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민족통일과 강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은 선군정치의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공격에 반격할수 있는 충분한 자위적무장력을 갖추었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경제를 꾸려나갈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남조선인턴네트홈페이지 《통일뉴스》)

《북의 막강한 군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언제든 북을 침략했을것이며 우리 나라에는 전쟁이 났을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남북모두를 보호하고있다.》(남조선 《통일련대》인턴네트홈페이지)

《선군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며 자기 존엄을 지킬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제힘으로 민족의 자결을 지켜내는 자주성의 산물이고 외세의 침략을 짓누를수 있는 자위적무력이다.》(남조선 《남북공동선언실천대》인턴네트홈페이지)

《김정일 장군은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세의 민족적영웅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미국본토를 날려보낼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셨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가장 위대한 강철의 령장,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말은 미

